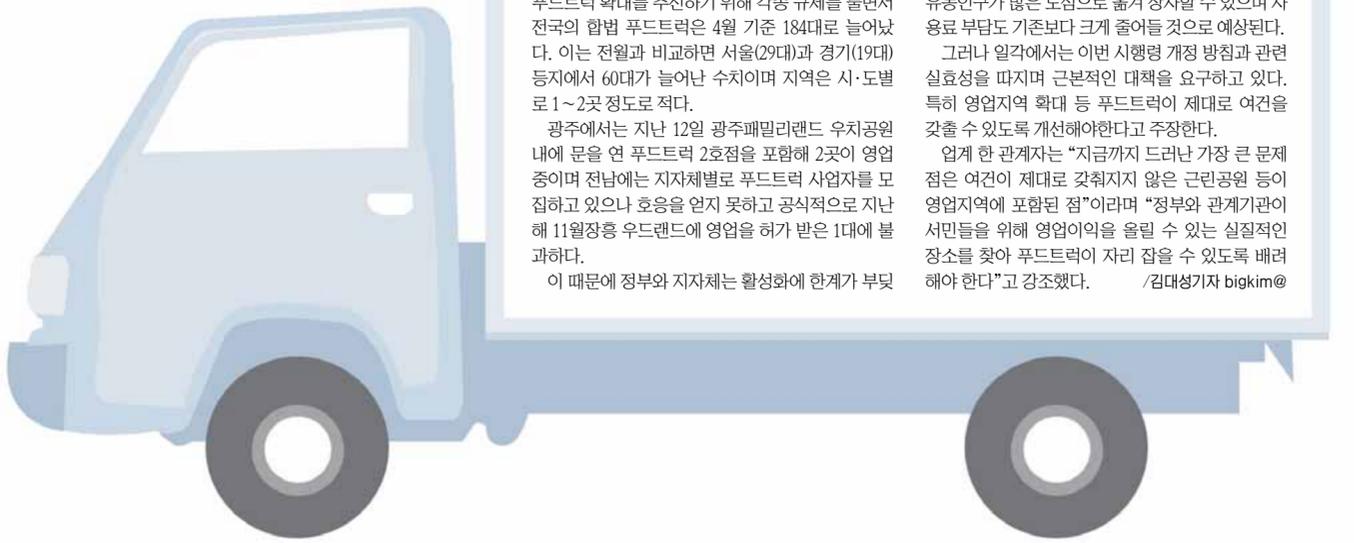


‘푸드트럭’ 영업규제 푼다지만...



광주 푸드트럭 1호점 주인공인 최(26)씨는 지난 해부터 시청 야외스케이트장에서 두 달간 영업을 한 이후 마땅한 영업장소가 없어 지금은 전국 축제장이나 행사장을 찾아다니고 있다. 푸드트럭을 한 곳에 서만 영업하도록 묶어 놓은 황당한 규제 때문에 자리를 옮겨 장사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영업제한 논란을 빚었던 푸드트럭이 올 하반기부터 지자체가 지정한 이른바 ‘푸드트럭 존’에서 자유롭게 옮겨가며 장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영업 활성

하면서 푸드트럭 사업의 존폐론까지 제기됐다.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 도시공원과 하천부지, 관광단지, 체육시설 등으로 영업허용 구역을 늘려왔지만 이동성 제한으로 매출이 한계가 부딪히면서 도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푸드트럭 이동 영업 지원 계획은 이러한 한계를 넘기위한 방안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30일 푸드트럭의 이동영업을 위한 새로운 허가방식 도입과 지역 일자리창출시설에 대부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푸드트럭은 사업자 1명에게 특정장소 1곳에 장기(1~5년) 허가해주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동영업을 하려면 여러 장소를 사용 허가해주고 사용료는 전체 장소에 연 단위로 부과해야 했다.

이를 하반기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여러 ‘푸드트럭 존’ 안에서 여러 영업자가 이동하며 영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것이다. 또 사용료는 연간 단위가 아닌 영업자들이 실제 사용한 시간과 횟수를 기준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따라서 공원이나 유휴지에 영업을 허가 받은 푸드트럭이 아침과 점심때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으로 옮겨 장사할 수 있으며 사용료 부담도 기존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시행령 개정 방침과 관련 실효성을 따지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영업지역 확대 등 푸드트럭이 제대로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은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근린공원 등이 영업지역에 포함될 점”이라며 “정부와 관계기관이 시민들을 위해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는 실질적인 장소를 찾아 푸드트럭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광주 2대·전남 1대 불과 이동인구 많은 도심으로 옮겨 장사할 수 있어야

화와 청년 창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실제 영업 희망자가 적고 아직까지 성업에 이르지 못한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푸드트럭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깊어지고 있다.

지난 3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들이 푸드트럭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풀면서 전국의 합법 푸드트럭은 4월 기준 184대로 늘었다. 이는 전월과 비교하면 서울(29대)과 경기(19대) 등지에서 60대가 늘어난 수치이며 지역은 시·도별로 1~2곳 정도다.

광주에서는 지난 12일 광주패밀리랜드 우지공원 내에 문을 연 푸드트럭 2호점을 포함해 2곳이 영업 중이며 전남에는 지자체별로 푸드트럭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으나 호응을 얻지 못하고 공식적으로 지난 해 11월장흥 우드랜드에 영업을 허가 받은 1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는 활성화에 한계가 부딪

월성부른 벤처 골라 성공 노하우 전수

중기청, 선도벤처 연계 창업 지원
마케팅 비용 등 최대 9천만원 지원
총 80곳 중 21일까지 50곳 모집

성공한 선도기업이 보유한 기술·마케팅 인프라 등을 바탕으로 후배 창업가를 발굴·육성하는 ‘2016년도 제1차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와 공동으로 케이-스타트업(K-startup 창업지원사이트)을 통해 다음달 1일부터 21일까지 (예비)창업자 모집에 들어간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올해 (예비)창업자 육성 규모는 전체 80개사 내외로 1차 사업에서는 약 50개의 (예비)창업기업(신규지원 기업 40개, 계속지원 기업 10개)이 선정된다. 2차 사업은 오는 8월이나 9월 중에 이뤄질 예정이다.

올해 신규로 선정되는 (예비)창업자에게는 총 사

업비의 70% 이내에서 시제품 제작, 지적권 취득, 국내외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최대 9000만원 한도까지 지원된다.

전년도 지원기업 중 매출과 일자리 창출 역량이 우수한 기업의 경우에는 지속 성장에 필요한 마케팅 및 시제품 업그레이드 비용을 최대 4500만원까지 후속 지원된다.

주요사업 중소기업청장은 “앞으로 창업기업의 지속 성장 유도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선배기업가와 창업기업가가 서로 협력하는 기업가적 창업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2인 이상의 (예비)창업팀 또는 3년 미만의 초기 창업기업(공고일 기준)은 k-startup(<http://www.kstartup.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 /김대성기자 bigkim@

조계현 소장의 특 특 창업 이야기



프랜차이즈 생존을 왜 더 높을까

2015년 기준으로 분석된 데이터를 살펴보면 예비창업자가 일반창업을 한 경우에는 창업 이후 3년 생존율이 58.4% 수준이고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한 경우에는 창업 이후 3년 생존율이 73% 수준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했을 때 일반창업보다 3년 생존율이 14.6%가 더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훨씬 더 안정적이고 경쟁력이 높은 창업방식임을 보여주는 데이터다.

두 가지 창업방식 모두 예비창업자가 인생을 걸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생존률의 차이가 적지 않게 났는데 대해서 이유를 알려면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일반창업보다 어떤 점이 우월한지를 살펴보면 그 안에 정답이 들어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반창업보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훨씬 경쟁력이 강한 요인들을 살펴보면 크게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차별화와 시스템의 차이다. 프랜차이즈는 기본적으로 평범한 아이템조차도 차별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서 경쟁력 있는 사업모델화 시키고 고객의 확대와 가맹점 관리에 최적화된 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성공복제형 사업이다. 아이템의 흡입력은 물론이고 고객을 유입시키는 전략이나 접객서비스 등의 방식이 시스템화 되어 고객만족도를 기본적으로 충족시키고 재방문을 유도하는데 일반창업보다는 유리한 사업형태적 지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다.

두 번째는 트렌드를 읽어내는 안목의 차이를 들 수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기본적으로 아이템과 브랜드를 만들 때 트렌드를 최우선하며 사업을 준비하고 전략을 구성한다. 또한 트렌드의 변화가 감지되면 재빨리 이를 본사와 가맹점에 적용시켜 반영하는 민첩성이 뛰어나다. 다시 말해서 사회나 고객들의 니즈(NEEDS)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뛰어나다는 얘기다. 신제품 출시나 마케팅 전략의 변화, 디자인 변경, 가격 변경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세 번째는 브랜드나 본사의 경쟁력이 가맹점의 경쟁력으로 연결작용을 한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일반창업이 독자적인 사업모델이라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본사라는 지원군과 타 가맹점이라는 우군이 있는 연합형 사업모델이라는 얘기다. 시간이 흐르면 가맹점이 증가하고 가맹점이 증가하면 브랜드 파워가 강해지고 브랜드파워가 강해지면 본사의 역량이 커지게 되며 그런 이미지가 곧바로 모든 가맹점으로 투영되어 고객들의 신뢰도가 상승하기에 방문률로 연결되어 경쟁력이 강해진다는 큰 장점이 있다.

네 번째는 메뉴(상품)구성이나 이미지 그리고 상권과 입지에 서의 태생적인 경쟁력의 차이를 들 수 있다. 프랜차이즈는 메뉴(상품)구성시 고객들의 선호도를 기반으로 선택되어지며 매장 이미지는 일반 점포들이나 타 브랜드와 차별화된 감각적인 디자인을 적용시켜 만든다. 또한 가맹점이 입점할 상권과 입지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성공확률이 높은 점포로 가맹점 개설을 최우선시 하기에 시작부터 일반창업 점포보다 경쟁력이 강한 가맹점으로 개설되어지는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일반창업자들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획일화된 프랜차이즈보다 일반창업의 장점인 개성이 강하고 경쟁력 있는 점포를 만들어낸다면 이런 통계수치로부터 얼마든지 자유로워 질 수 있다.

<소상공인창업전략연구소>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우정미술관

동구 금남로 2가 31번지
한국 채색화(만화) 연구소

대표 김생수 ☎062)383-8408

금강버티컬

버티컬, 커튼, 블라인드, 홀딩도어, 콤비블스크린, 전동블스크린, 우드블라인드, 실사블스크린외, 허니콤의 제작 및 시공

☎062)514-6118, 010-5627-6119

웰스정수기(렌탈) 광주센터

북구 신안동 광주역건너편 교원빌딩3층 미네랄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연수기, 전기렌지(독일)렌탈

일시불상당 및 관리매니저모집
☎010-5115-5305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대우사

동구 문화전당로 26번길 10-6(남동30) 카다로그, 포스터, 디자인, 판촉물 인쇄전문

대표 고광백 ☎062)232-0092

구수향

동구 예술의거리 원불교 건너편 골목 생고기 비빔밥 전문, 평등어탕, 한방오리, 오리로스, 예약손님 환영

대표 오순옥 ☎062)266-7200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교원 L&C 광주센터

북구 신안동 광주역 교원빌딩(구 고려시멘트) 3층 웰스정수기, 비데, 청정기, 전기렌지, 연수기 판매 및 렌탈상담전문

화장품, 효소홍삼 취급/매니저수시모집
☎010)2681-6067

국수나무용봉점

북구 용봉동 1091-4번지 (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

☎062)526-5475, 010-8621-5959

고흥나루터

동구 지산동 705-9번지(법원옆길) 하모(잡장어) 사부사부전문점, 바다장어구이, 장어탕

대표 모복자 ☎062-222-3092

태양식육식당

북구 신안동 전대치과 대학병원 건너편 다슬기 해장국·다슬기 오리 백숙 다슬기담백숙·다슬기 수제비 전문

대표 이정숙 ☎062)511-5292

현대힐스테이트공인중개사

북구 각화동 224-(12층) 토박이가 운영하는 토지 및 상가 전문 중개사무소

☎062)511-1161, 010-7723-1201

다미울

북구 풍향동 백림약국 건너편 천연염색의류, 인테리어 소품, 의상 지수 수선

한복, 미크수, 한우 예쁜 자수로 리폼 26년 경력 의류 지수
대표 고진순 ☎010-8261-5205

광주간호학원

동구 금남로 17가 19-1 천하빌딩 4층, 전원취업 알선

국비 간호 조무사 모집 일반주·야간
대표 윤상현 ☎062)222-5353

대풍쌀농산

북구 서방로 39번길9-2 (중흥동 평화맨션입구) 일반미·찰쌀·보리쌀·현미·서리태

팔·들깨·녹두·참깨 등 잡곡 도·소매
대표 박경열 ☎062)267-0101, 010-3609-717

토산철학원

북구 두암동 에덴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호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한마음축산

북구 두암동 라인동산@앞 최고급 한우를 최소가격으로 판매

등갈비, 포천식 왕갈비, LA갈비 선물용 포장가능
대표 김진선 ☎062)251-8892

미래나눔공인중개사

동구 광산동 56번지 2층~3층 수익형 빌딩, 프랜차이즈, 토지, 상가 매매 및 임대

대표 주승일 ☎062)227-2249, 010-3605-5571

천수사백마장군

북구 중흥동 800-26 동부교육청앞바로 인생상담, 병점, 사주, 궁합, 부적 영으로 봅니다.

대표 허길배 ☎010-2828-2008

해뜨는 집

동구 대의동 78-3번지 전일빌딩 뒤 고등어구이 정식, 목욕지 등뼈찜

목욕지 고등어말이, 고추장 양념구이 (야간) 각종 술안주 일체
대표 박현희 ☎062)228-9233